

# 국토 철통방어 '화약무기' 최초 개발

최무선

노락질 일삼던 왜구들 화약무기 등장 후 소탕돼

**과** 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현 가운데 가장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崔茂宣 1325~1395)이다. 최무선은 고려말 사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가지 화약무기를 만들었다. 그가 세운 화약무기 담당 관청의 이름은 '화통도감'인데, 여기서 처음 만든 화약무기들은 여럿 그 이름이 전해진다. 최무선이 만든 무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발사장치 : 대장군(大將軍) · 이장군(二將軍) · 삼장군(三將軍) · 육화석포(六火石砲:완구의 일종) · 화포(火砲) · 화통(火筒) 등 / 발사물 : 화전(火箭) · 철령전(鐵翎箭) · 피령전(皮翎箭) · 철탄자(鐵彈子) · 천산오룡전(穿山五?箭) / 폭탄 : 질려포(疾藜砲) / 로켓 : 주화(走火) · 유화(流火) · 촉천화(觸天火) / 기타 (신호탄) : 신포(信砲)

### 화약무기 개발 열성, 부친 영향 추측

최무선의 본관은 영주(현재의 영천)이다. 그는 광흥장사(廣興倉使) 최동순의 아들로 무인출신이다. 그의 아버지가 맡고 있던 광흥장사란 정5품에 해당하는 벼슬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의 관리 담당자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화폐가 발달하지 못

했던 관계로 세금을 곡식으로 거둬들였는데, 해안을 따라서 배로 운반되어 온 곡식은 광흥창에서 보관했다.

따라서 최무선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일에 눈뜨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 말은 바로 왜구가 나라의 해안을 습격하여 닥치는 대로 노락질하던 시절이었다. 아마 최무선은 이런 연고로 해안 방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무선이 화약무기 개발에 열성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왜구의 격퇴에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화통도감을 만든 지 3년 뒤인 1380년 8월 최무선은 나세(羅世 1320~1397), 심덕부(沈德符 1328~1401)와 함께 전함 100척을 거느리고 진포(鎭浦)로 출동하여 왜구를 소탕하고 포로로 잡혔던 아군 334명을 구출했다. 진포는 지금의 전라북도 군산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 지역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들어오는 곡물의 집결지로 왜구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었다. 최무선의 이러한 전과는 <고려사>에 남아 있는 기록이다.

최무선의 왜구 소탕 작전에는 화약무기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왜구들한테는 최무선의 화약 무기에 버금가는 가공할 위력의 화약무기가 없었다. 최무선의 화약무기는 처음 얼마동안 고려 해군에게 절대적 우위를 보장해 주었다. 고려가 왜구를 소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무선의 화약무기 덕택이었다.

### 최무선은 화약의 최초 발명자일까?

그렇다면 화약의 최초 발명자는 최무선일까.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려 사람들은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명절 때 화약을 사용하여 불꽃놀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이 사용한 화약은 원나라에서



최무선이 만든 발사장치 대장군과 같은 종류의 17세기 대장군포. 육군박물관 소장.



전북 군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진포대첩지.

수입한 것이었다. 원나라 사람들은 화약 제조에 대한 비법을 고려에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최무선의 공로는 바로 그런 비밀에 쌓인 화약제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었다는 데에 있다.

사실 화약이 대단한 발명품인 것만은 분명하다.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Bacon, Francis 1561~1626)은 서양문명의 원천으로 3대 발명품을 꼽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약이었다. 실제로 서양은 동양으로부터 화약이 전해지자 화약을 사용한 무기인 화포 등을 개발해 봉건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엎고 말았다. 전쟁 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활과 칼로 무장한 전문 기사와 그들이 거거하는 봉건 영주의 성이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 ‘화통도감’이 없어진 이유

화약을 처음 사용한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서양처럼 화약으로 인해 기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조선과 중국은 오랫동안 문(文)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의 발달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의 사무라이 사회는 무(武)를 바탕으로 하고 있던 중세 서양사회와 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었

다. 따라서 신무기의 등장은 일본의 정치 체제에 변화를 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보다 앞서서 서양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사회구조의 특징도 한몫한다.

최무선이 설치한 화통도감은 10년 뒤에 없어졌다. <고려사>에는 화통도감이 창왕 때 없어지고(1388~1389) 그 조적이 군기시(軍器寺)에 흡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통도감이 없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짐작해 내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왜구 소탕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자 화약무기의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최무선은 <화약수련법>이라는 책을 그의 아들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최무선의 아들은 최해산(崔海山)으로 조선초에 문익점의 자손과 함께 관직에 천거된 인물이다. 최해산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초의 화약무기 개발에 상당한 공을 남겼다. 최무선은 사후에 의정부 우정승·영성부원군 등에 추증되었다. 최무선의 고

향 경상북도 영천에는 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최무선 업적 높게 평가한 역사적 기록들

<국조보감>(國朝寶鑑)에는 1456(세조 1)년에 양성지(1415~1482)가 “문익점은 처음으로 목화씨를 얻어오고, 최무선은 처음으로 화포술(火砲術)을 배워왔으니, 그들의 고향에 사당을 세우고 그 후손을 특별히 채용하자”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시대의 학자 유성룡(1542~1607)이 남긴 문집 <서애집>(西厓集) 16권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약의 발명은 최무선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공이 아주 크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더라도, 최무선의 업적은 그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 그 뒤에도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무선이 죽고 600년 이상이 흘렀지만, 한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최무선이라는 이름이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글 박성래 | 한국의국어대 사학과 교수